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초점)-흔들리는 엔
- ◇ (시장진단)-코로나 19 바로미터로 떠오른 원화 약세 가속화될 조짐
- ◇ (칼럼)-인플레이 목표 vs 재정적자 축소 사이 흔들린 日..거시경제 vs 금융안정 고민하는 韓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이 가속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이 서울 시내 한 교차로를 건너고 있다. (로이터/김홍지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2월21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209.2	-2.2%	-4.4%	-3.5%	유로	1.0843	0.1%	-3.3%	-2.3%
100엔 대비	1,081.5	-0.4%	-1.8%	-4.4%	엔	111.57	-1.6%	-2.7%	0.9%
유로 대비	1,308.7	-2.1%	-1.1%	-1.3%	위안	7.0230	-0.6%	-0.9%	-1.3%
위안 대비	171.71	-1.5%	-3.5%	-2.4%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28,992.41	-1.4%	1.6%	22.3%
코스피	2,162.84	-3.6%	-1.6%	7.7%	나스닥	9,576.59	-1.6%	6.7%	35.2%
코스닥	667.99	-3.0%	-0.3%	-0.9%	S&P500	3,337.75	-1.3%	3.3%	28.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MSCI APxJP	545.16	-2.0%	-1.4%	15.8%
국고채 3Y	1.182%	-14.8bp	-17.8bp	-45.7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5Y	1.267%	-18.7bp	-21.3bp	-40.4bp	미국채 2Y	1.354%	-7.6bp	-20.7bp	-93.7bp
국고채10Y	1.443%	-21.0bp	-24.0bp	-26.5bp	미국채 10Y	1.473%	-11.5bp	-43.7bp	-78.1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유가(WTI)	53.38	2.6%	-12.6%	34.5%	한국 5Y	23.3bp	1.4bp	2.2bp	-17.0bp
금(현물)	1,643.32	3.7%	8.3%	18.3%	일본 5Y	14.4bp	-1.1bp	-3.3bp	-4.0bp
TR상품지수	2,423.31	-0.2%	-2.5%	4.8%	중국 5Y	34.2bp	1.3bp	3.5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국내 주요 주간 일정

<2월 24일(월)>

- 기재부,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08:00)
- 기재부,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25일(화)>

- 한은, 2월 소비자동향조사(06:00)
- 한은, 2019년 4/4분기중 가계신용(잠정)(12:00)

<26일(수)>

- 한은,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06:00)
- 한은, 1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2:00)
- 통계청, 2019년 12월 인구동향(12:00)

<27일(목)>

-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 회의
- 한은, 수정 경제 전망(12:30)
- 기재부,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월 발행실적(17:00)

<28일(금)>

- 통계청, 1월 산업활동동향(08:00)
- 한은, 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12:00)
- 기재부, 3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15: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2월 24일(월)>

- 미국 1월 전미활동지수(22:30)
- 일본 휴장

<25일(화)>

- 미국 2월 달러스옌은 제조업지수(00:30)
- 일본 12월 경기선행지수 수정치(14:00)
- 미국 12월 주택가격 상승률(23:00)

<26일(수)>

- 미국 2월 소비자신뢰지수(00:00)
- 미국 1월 건축허가 수정치(22:00)

<27일(목)>

- 미국 1월 신규주택판매(00:00)
- 유로존 1월 총유동성(M3) 증가율(18:00)
- 유로존 1월 가계대출(18:00)
- 유로존 2월 경기체감지수 · 소비자신뢰지수 확정치(19:00)
- 미국 1월 내구재주문(22:30)
- 미국 4분기 GDP 수정치(22:3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22:30)

<28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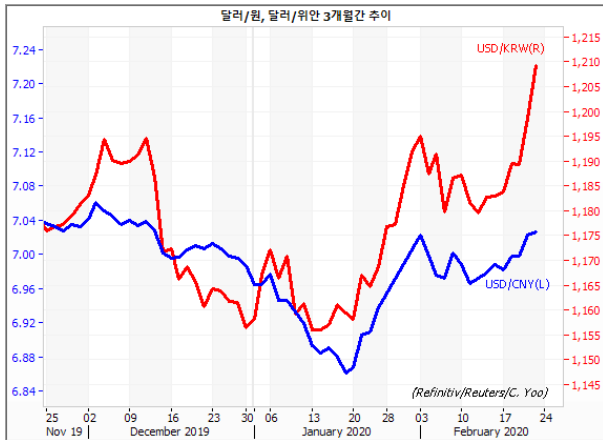
- 미국 2월 캔자스시티옌은 제조업지수(01:00)
- 일본 1월 실업률(08:30)
- 일본 1월 산업생산 잠정치(08:50)
- 일본 1월 소매판매(08:50)
- 미국 2월 시카고 PMI(23:45)

<29일(토)>

- 미국 2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00:00)
- 중국 2월 NBS 제조업 · 비제조업 PMI(10: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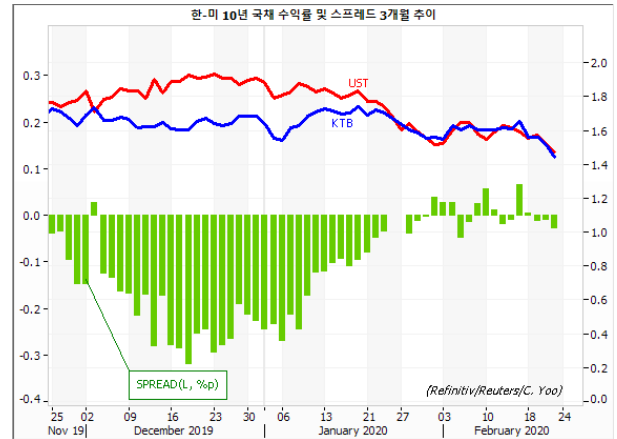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이 국내에서 걸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 주 원화는 본격적으로 약세 압력에 놓였다.
-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195-1220 원이다.
- 한국이 코로나 19 공포 중심에 서게 된 만큼 원화는 대외 모멘텀이 아닌 코로나 19의 국내 확산이라는 자체적인 이슈에 휘둘리며 당분간 약세 압력을 키울 전망이다.
- 이런 가운데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가능하기 위해 이번 주에 있을 국내외 주요 경제 지표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 한은의 금리 인하는 이제는 서프라이즈가 아닌 상황이 됐을 정도로 기대가 크지만, 주 중에 나올 국내외 경제지표 결과에 대한 민감도는 더욱 커졌다.
- 이번 주 발표 예정인 국내 주요 지표로는 2월 소비자심리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및 경제심리지수, 1월 산업활동동향 등이다.
- 아울러 미국의 주택판매, 개인소비지출, 4분기 GDP 등도 나올 예정으로 이를 통해 달러 강세 모멘텀과 함께 글로벌 경기를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 단, 원화 전망과 관련해 당국의 대응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때다.
- 최근 원화는 위안화보다 더욱 두드러진 약세 일변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당국 조치에 대한 경계감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관련 뉴스, 2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결과 등과 맞물리며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코로나 19 확산 흐름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다. 일부 지역 중심의 전파 단계를 넘어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데다 병원 내 감염도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리도록 지시했다.
-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 중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로 귀국일을 하루 앞당겼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에서 코로나 19 확산 관련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불과 열흘 전만 해도 2월 금리 동결이 당연시됐지만 극단적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다 보니 모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 이번 주 최대 이슈는 역시 27일로 예정된 금통위 회의와 한은 수정 경제 전망 발표다.
- 25일과 26일 발표되는 2월 소비자동향조사,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소비심리지표는 27일 회의 결과에 대한 가능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초점)-흔들리는 엔

도쿄/싱가포르 (로이터) - 일본 경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까지 늘어나는데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통화로서 엔의 지위도 흔들리고 있다.

엔은 20일 달러 대비 10개월래 최저치로 절하됐고, 다른 통화들에 대해서도 매도세가 나타났다. 트레이더들과 애널리스트들은 엔 시장에서 대형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이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이는 글로벌 위기시 일본계 펀드들이 자금을 역송금해 엔 가치가 상승한다는 오랜 추정과 배치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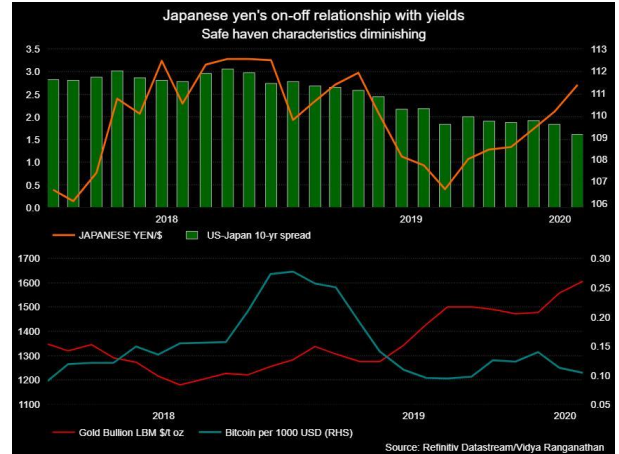
싱가포르 BNP 파리바월스매니지먼트의 샤파리 사크데브 아시아 FX 헤드는 "금에서 볼 수 있는 코로나 19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엔에서는 같은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중국과의 거리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엔을 도와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19에 대한 일본의 노출과 최근 경제지표 부진이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이틀간 엔은 2% 절하돼, 2017년 9월 이후 최대 2거래일 낙폭을 기록했다. 21일 아시아 거래 초반 112엔 위에서 거래되고 있다.

엔은 유로와 파운드, 호주달러에 대해서도 큰 폭의 약세를 나타냈다.

반면 금값은 20일 7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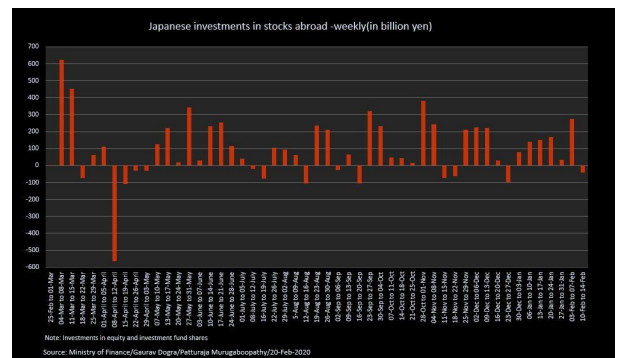
애널리스트들은 엔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로 일본 경제와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우려 속에 엔 표시 자산에서 일본 연기금 등 대규모 포트폴리오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지목했다.

중국에서 코로나 19가 처음 발생했지만, 크루즈선을 통한 감염으로 일본의 감염자가 중국 외 감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경제를 부흥시킬 것으로 기대됐던 7월말 도쿄 올림픽에도 먹구름이 드리울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크루즈선 외에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확산이 시작된다면 그 여파로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일본 경제는 지난 분기 예상보다 크게 수축한 바 있다.

2월 첫 2주간 일본인 투자자들의 순 해외채권 매수가 3조엔에 달했던 것은 국내 투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을 시사하는 지점으로 보인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리의 하락은 캐리 트레이드 '펀딩 통화'로서 엔의 매력을 위축시켰다. 시장이 불안할 때 캐리 트레이드가 줄어드는 것도 엔 가치를 지지해주는 또다른 요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펀딩 통화로서 매력이 줄어든 것은 엔의 안전자산 지위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기둥을 약화시킨다.

HSBC의 브렌트 도벨리 스팟 FX 트레이더는 "펀딩 통화로 엔을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더 이상 엔을 안전자산 통화로 거래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년간의 움직임은 의문을 불러온다"면서 최근 몇 달간 한반도 긴장과 무역전쟁, 지난 1월 미-이란 간 충돌 등에 엔이 크게 반응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그는 "19일 움직임도 우리가 새로운 엔 체제로 넘어갔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고 말했다.

(시장진단)-코로나 19 바로미터로 떠오른 원화 약세 가속화될 조짐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국내 전역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원화 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21일 장 중 작년 9월 이후 최고치로 훌쩍 올라섰다.

중국 내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폭이 둔화하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기미도 있었지만, 일본과 한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공포심리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중국 경제 둔화와 이에 따른 세계 교역량 위축이라는 테마 아래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국과의 경제 연관성이 높은 한국이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한 바로미터로 꼽히면서 원화가 압박을 받고 있다.

▲ 원화 전망 안갯속

원화는 올해 들어 약 4% 절하돼 G20 국가 중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호주 다음으로 절하폭이 가장 크다.

국가	통화	현재	2020년중(%)	2019년말
남아프리카공화국	란드 ZAR=	15.1244	-7.5%	13.9937
독일/이탈리아/프랑스	유로 EUR=	1.0792	-3.7%	1.121
러시아	루블 RUB=	64.0979	-3.4%	61.9191
멕시코	페소 MXN=	18.888	+0.2%	18.925
브라질	헤알 BRL=	4.3938	-8.5%	4.019
사우디아라비아	리알 SAR=	3.7507	+0.0%	3.7508
아르헨티나	페소 ARS=	61.599	-2.8%	59.86
영국	파운드 GBP=	1.2892	-2.8%	1.3259
인도	루피 INR=	71.81	-0.6%	71.35
인도네시아	루피아 IDR=	13,745	+1.0%	13,880
일본	엔 JPY=	111.94	-3.0%	108.61
중국	위안 CNY=CFXS	7.0324	-1.0%	6.9632
캐나다	달러 CAD=	1.3247	+2.0%	1.2986
터키	리라 TRY=	6.107	-2.6%	5.9479
한국	원 KRW=KFTC	1,206.7	-4.2%	1,156.4
호주	달러 AUD=	0.6593	-6.1%	0.702
달러지수	포인트 DXY	99.811	+3.6%	96.389

(G20 회원국 통화 21일 오후 현재까지 움직임,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급증했던 때부터 원화는 코로나 19에 따른 대외적 여파뿐만 아니라 국내 실물경제 둔화 우려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면서 약세폭을 한층 확대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1일 오전 기준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는 156명이다.

물론 현재 달러/원 환율은 수출업체들의 막강한 네고 저항에 막혀 장 중 상승 속도는 조절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향후 코로나 19 사태의 전개 방향을 가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화의 약세 행보는 오히려 거칠어질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한 은행의 외환딜러는 "코로나 19가 시장심리를 흔들기 시작한 상황에서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 달러/원 상승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면서 "심리는 취약해졌고, 나아가 국내 펀더멘털 개선 가능성도 낮아지면서 원화는 당분간 쉽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네고 저항이 다소 걸리면 달러/원 환율의 전고점인 1223 원 상향돌파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무디스, S&P 등 주요 해외 기관들이 속속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1%대로 하향 조정하는 등 당초 한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는 빠르게 식어가는 모양새다.

시티은행은 최근 원화 관련 보고서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생산 차질과 코로나 19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원화 롱 포지션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물론 외환당국은 금융시장 불안 확대시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를 단행할 것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통제 가능한 변수가 아닌 만큼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다른 은행의 외환딜러는 "당국 경계도 작용하지만 원화 약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19 확산 여부에 따라 원화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같은 여파가 다른 국내외 금융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패턴이 당분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다른 은행의 외환딜러는 "국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환율이 반등하는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코로나 19 사태가 불확실한 만큼 원화 움직임도 한층 불확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칼럼)-인플레 목표 vs 재정적자 축소 사이 흔들린 日..거시경제 vs 금융안정 고민하는 韓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혼다 에쓰로 시즈오카 현립대 국제학부 교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자문으로 '아베노믹스' 정책 기초를 설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혼다 교수

는 지난해 일본 정부가 소비세율 인상을 시도할 때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당초 공언했던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소비세율을 다시 인상할 경우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정적자 축소에 방점을 찍은 일본 정부는 예정대로 지난해 10월 소비세율 인상을 단행했다. 그리고 일단 현재까지 나온 지표는 소비세율 인상이 일본 경제 부흥을 내건 아베 총리의 계획에 상당한 타격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4분기 日 GDP 큰 폭 감소..소비세율 인상 후폭풍

지난 17일 일본 내각부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1.6% 감소했다. 일본의 분기별 실질 GDP가 감소한 것은 5분기 만에 처음이다. 연율로 환산하면 6.3% 감소한 것이다.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가 전 분기보다 2.9% 감소하면서 수치를 끌어내렸다. 개인 소비 부진은 10월에 단행된 소비세율 인상 때문으로 분석됐다.

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초강력 태풍 '하기비스' 등이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전부터 나왔지만, 부진의 폭이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소비세율을 올릴 때마다 큰 충격을 치렀다. 지난 2014년에 소비세율이 5%에서 8%로 인상된 이후에는 가계 소비가 급감하며 일본 경제가 단기 침체로 접어들기도 했다. 2014년 이후 부진에 빠졌던 일본의 가계 소비는 2017년 이후에야 증가세로 돌아섰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소비심리 위축에 대한 갖가지 대비책을 내놓았다. 구입빈도가 높은 식품에 대해선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를 이용한 소비에 대해선 소비세 2%를 포인트로 반환해 주는 제도를 운용해 소비자들의 가처분소득에 큰 변화가 없도록 하겠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이번 제도의 한계는 분명했다. 이같은 디스카운트 혜택은 제품 구매 후 일정 기간 이후 카드사에 의해 제공되도록 설계됐다. 소비자들이 실제 제품 구매 당시에 디스카운트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던 만큼 실제 매장에서의 소비 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은 줄어들 것이다. 지난해 12월 일본의 제조업 생산이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발표된 이후 일본 경제가 소비세 인상 영향에서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1분기 일본 경제 전망은 더욱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 자칫 2분기 연속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며 기술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정적자 축소하려다 더 큰 부양책 필요한 상황 만든 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다 보니 일본 정부의 소비세율 인상 결정에 대한 비판이 다시 늘고 있다. 이번 소비세율 인상이 2014년처럼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상당 부분 되돌리며 경기를 침체 국면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아베노믹스는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다. 아베노믹스로 일본은 패전 이후 최대 규모의 기업 영업이익(2018년 67조 7000억엔)을 달성했고, 고용시장도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아베노믹스를 열면서 강조한 디플레이션 탈출, 2% 인플레이션이라는 목표의 달성은 아직 요원해 보이는 상황이고 기업 구조조정 측면에서도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제는 2%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이 여의치 않아 보이는 시점에 재정적자 축소 쪽으로 정책 가중치를 높인 부분이다. 일본 당국이 상충되는 정책 목표를 추진하다 기존의 부양책 효과를 상당 부분 훼손시킨 악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물론 아베 정권에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소비세율 인

상이 더 큰 규모의 재정부양책을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을 부인하기도 쉽지 않다.

▲거시경제 VS 금융 안정 놓고 비슷한 고민 빠진 韓

일본의 사례를 지켜보는데 한국의 통화정책이 오버랩된다. 최근까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때마다 이슈가 되고 있는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의 가중치 논란이다.

일부 위원들은 현재 금통위가 가계부채로 대표되는 금융 안정에 지나치게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금통위가 저물가 추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을 방조해선 안 되며 성장과 물가에 집중해 금리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또 다른 위원들은 고령화에 따른 저금리, 저성장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금리 인하 등 거품을 키우는 인위적 수요 부양책으로만 대응할 경우 오히려 위험을 키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장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의 후폭풍이 정책 당국자들의 계산보다 컸다. 그 결과 소비세율 인상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금융 안정에 초점을 맞춘 금통위의 행보는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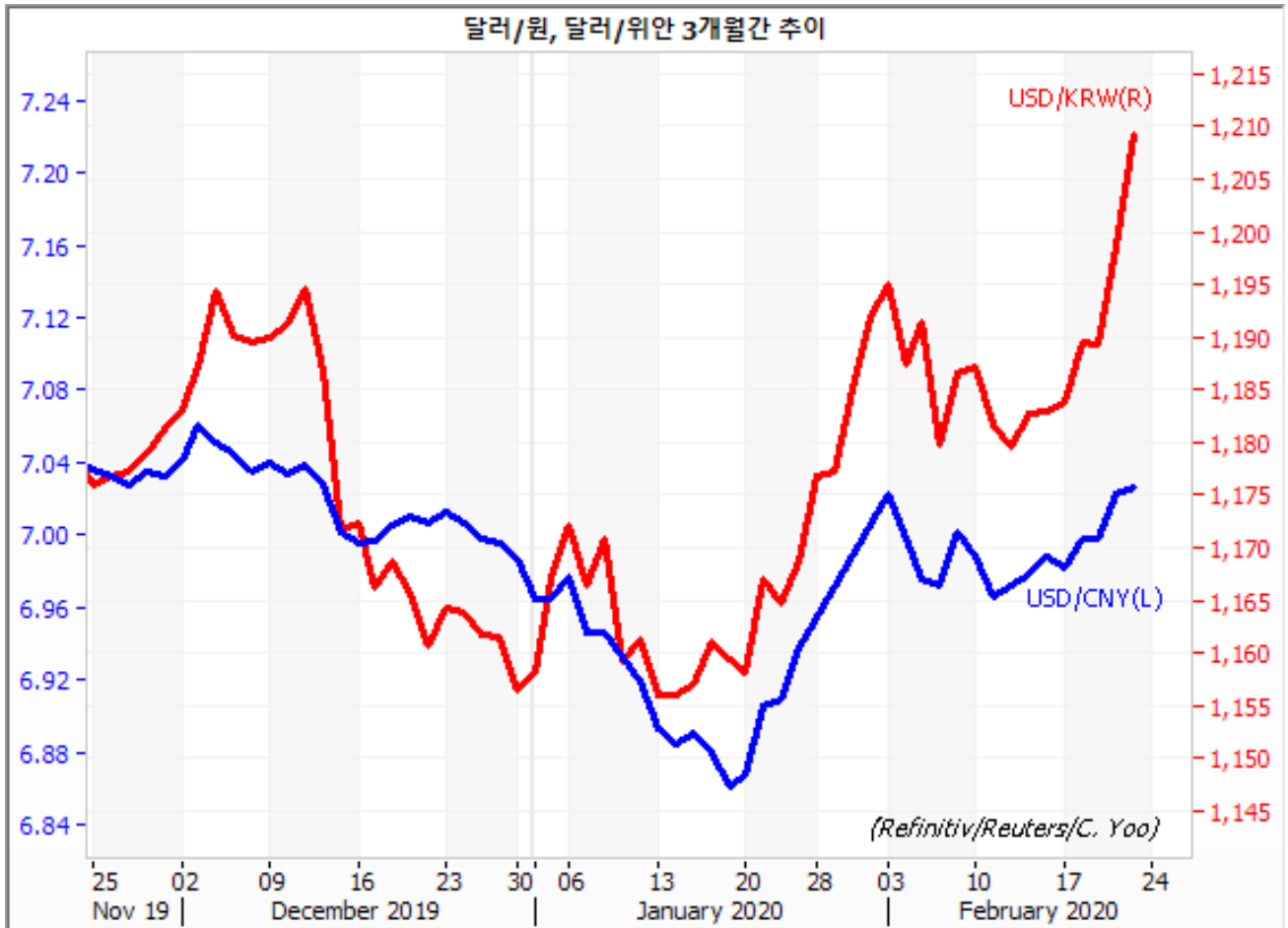
어쩌면 부동산 가격도 잡고 경기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코로나 19 사태도 큰 문제없이 지나가고 반도체 업황 회복과 함께 경기도 완만한 회복세로 접어들 수 있다.

하지만 2% 인플레이션 달성이라는 목표에 통화당국의 역량을 집중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후세에 내려질 수도 있다. 한국 경제에 큰 파도가 다가오고 있는 현시점에 정책 당국자들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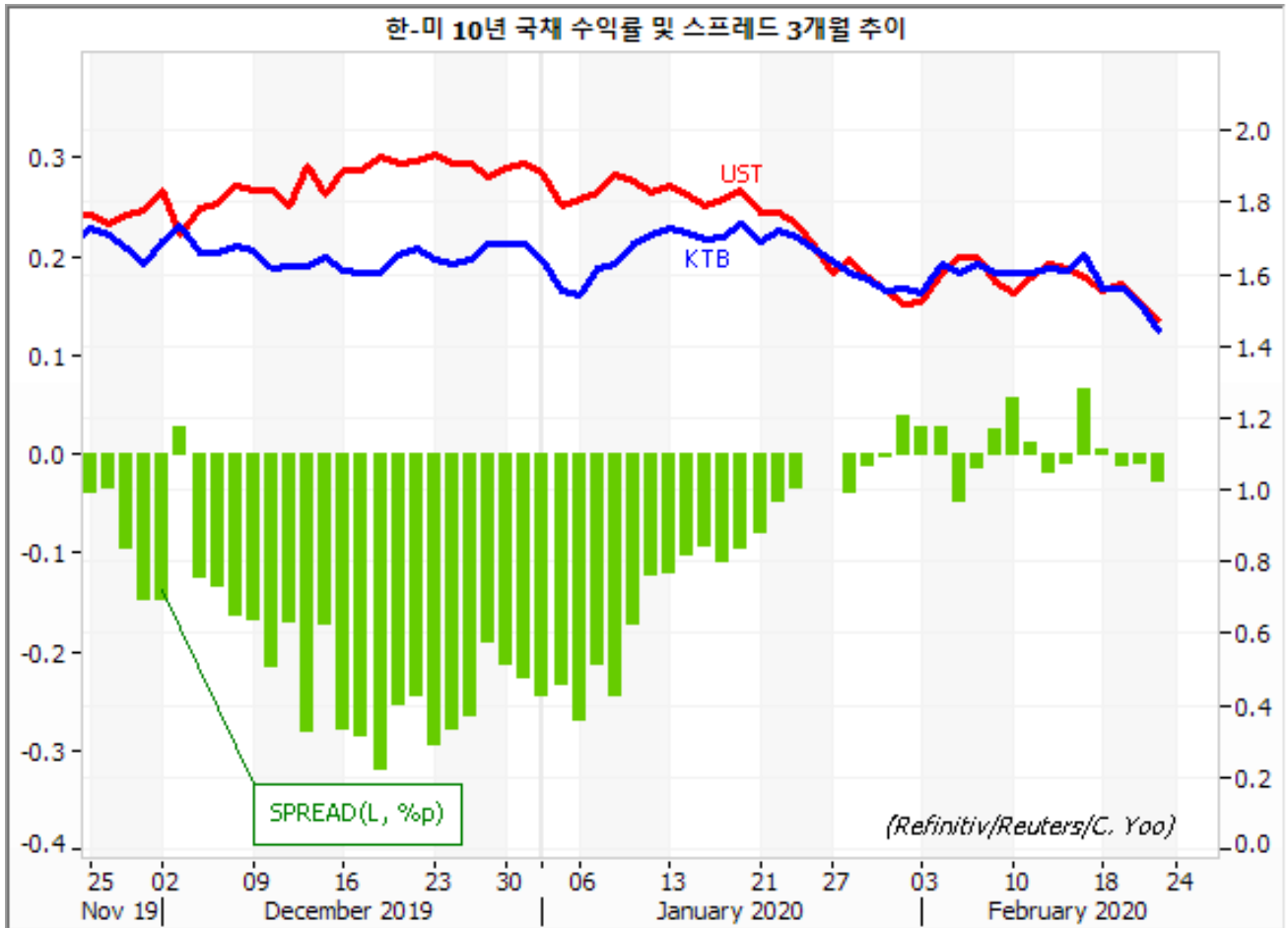
PHO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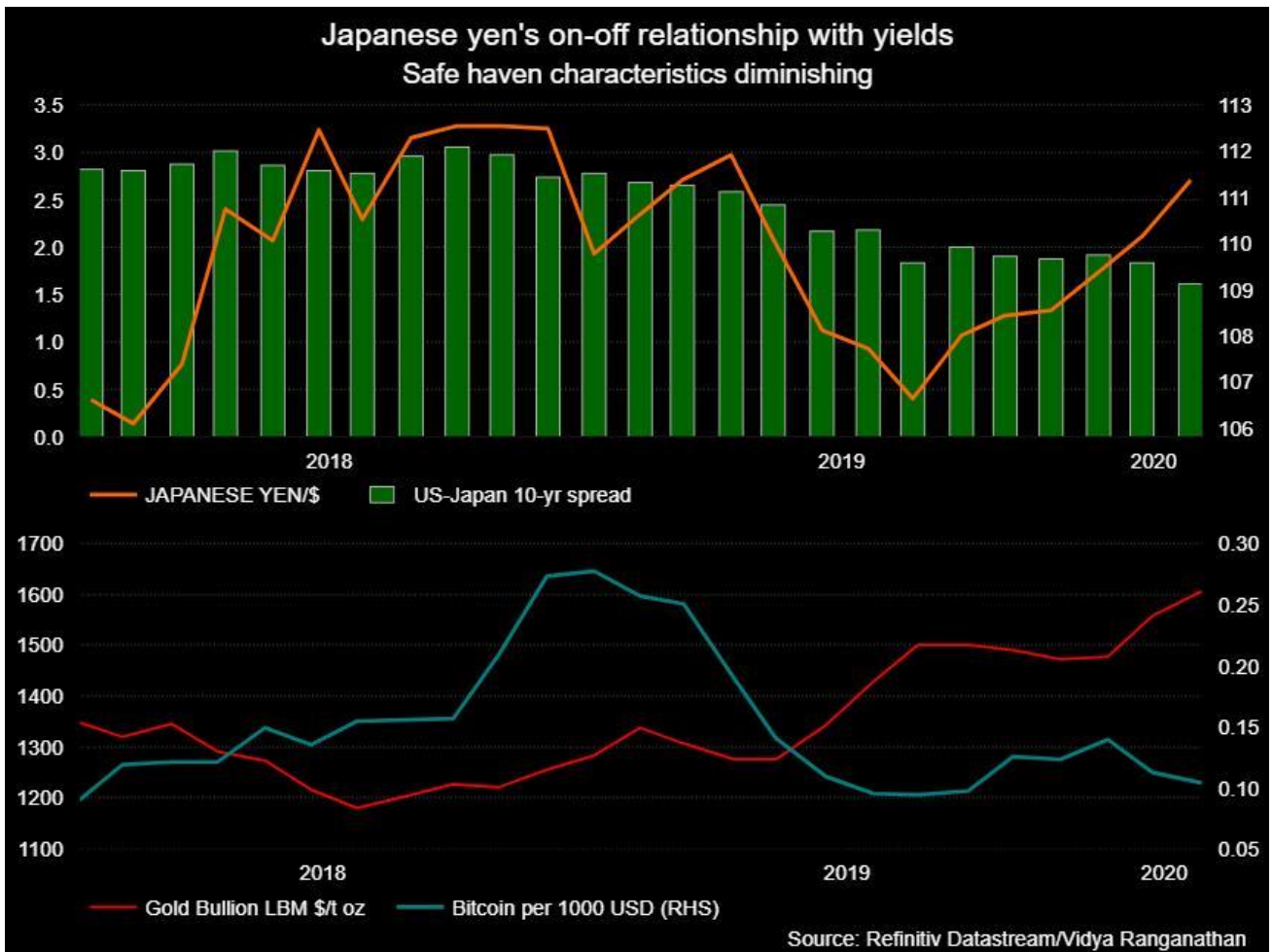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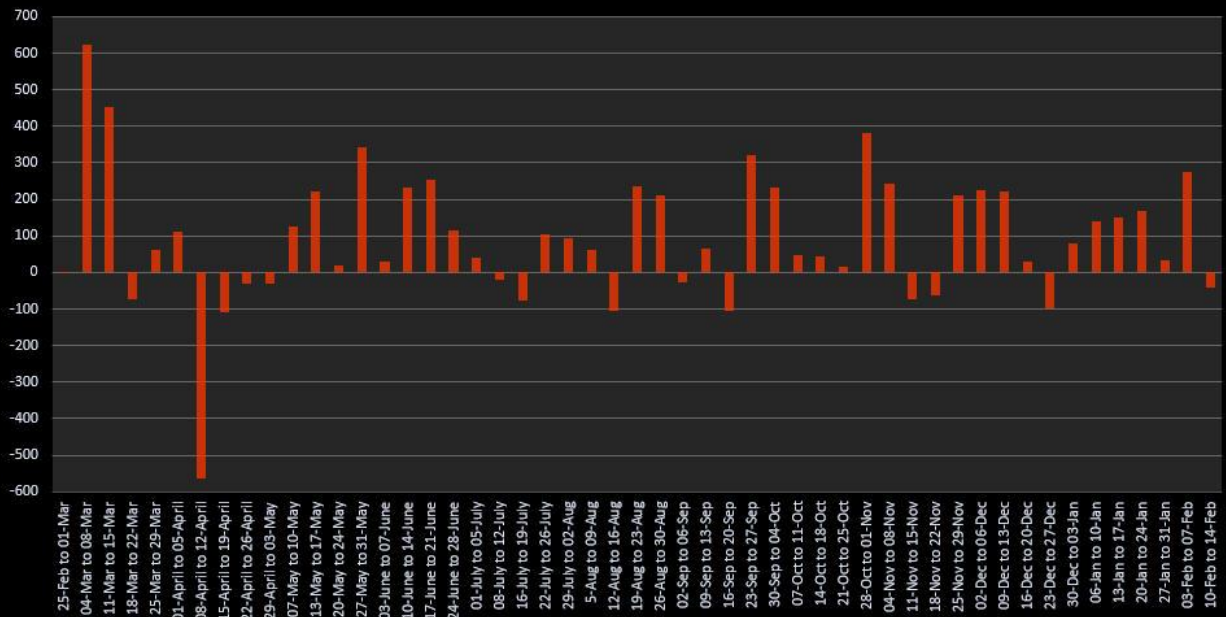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Japanese investments in stocks abroad -weekly(in billion yen)



Note: Investments in equity and investment fund shares

Source: Ministry of Finance/Gaurav Dogra/Patturaja Murugaboopathy/20-Feb-2020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국가	통화	현재	2020년중(%)	2019년말
남아프리카공화국	란드 ZAR=	15.1244	-7.5%	13.9937
독일/이탈리아/프랑스	유로 EUR=	1.0792	-3.7%	1.121
러시아	루블 RUB=	64.0979	-3.4%	61.9191
멕시코	페소 MXN=	18.888	+0.2%	18.925
브라질	헤알 BRL=	4.3938	-8.5%	4.019
사우디아라비아	리알 SAR=	3.7507	+0.0%	3.7508
아르헨티나	페소 ARS=	61.599	-2.8%	59.86
영국	파운드 GBP=	1.2892	-2.8%	1.3259
인도	루피 INR=	71.81	-0.6%	71.35
인도네시아	루피아 IDR=	13,745	+1.0%	13,880
일본	엔 JPY=	111.94	-3.0%	108.61
중국	위안 CNY=CFXS	7.0324	-1.0%	6.9632
캐나다	달러 CAD=	1.3247	+2.0%	1.2986
터키	리라 TRY=	6.107	-2.6%	5.9479
한국	원 KRW=KFTC	1,206.7	-4.2%	1,156.4
호주	달러 AUD=	0.6593	-6.1%	0.702
달러지수	포인트 .DXY	99.811	+3.6%	96.389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